



고생할 팔자로 태어났어도
'부자로 살아야겠다'는
한 생각을 일으키면 운명이 바뀝니다.
- 칠불사 회주 통광 스님

제849호 2011년 8월 17일 수요일 (음력 7월 18일 · 불기 2555년 · 주간)

투명성 강화가 불교의 살 길

교단자정센터, 조계종에 보조금사업 심의법 청원

불사심의위원회 구성, 경쟁입찰 등을 골자로 한 '보조금사업 불사심의에 관한 법'이 청원돼 법제화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대표 김원보)는 8월 11일 조계종 중앙총회 사무처를 방문해 법안문과 제안 설명서를 전달했다. 청원은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불사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은 2억원 이하의 공사 중 특정 시공업체와의 계약이 불가피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 시공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공사대금도 선지급하지 못하도록 해 시공업체의 경영부실로 인한 삼보정재의 누수를 차단했다. 교단자정센터는 또 법안에서 각 사찰들이 당해 불사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불사심의위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감사결과 1억원 이상의 손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자를 공권징지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계에 처하도록 제안했다.

경쟁입찰·하도급·선지급 법제화까지는 갈 길 멀어

자정센터는 법안을 통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불사심의위원회가 불사의 적정성을 관리·감독할 것을 규정했다. 심의위원은 중앙총회에서 선출하는 5인과 분사주지회에서 추천하는 3인을 포함해 총무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교계 안팎에서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관례에 벗어나고 불사의 주도권을 행사하던 스님들로서 한꺼번에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불사심의위원회의 심사 범위는 보조금 사업 중 전체 소요경비 1억 이상인 불사로 규정했다. 심사 내용은 입찰, 하도급, 공사비 지급은 물론 업자의 선정 및 제재까지도 담당케 했다. 또, 사찰별 불사집행 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해 불사금 집행의 비리를 방지하고 투명한 집행을 감시하고자 했다.

불사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불사심의위원회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감사를 통해 정계를 처할 경우 이에 공감할 수 있는 스님들이 드물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원보 교단자정센터 대표는 "법안을 준비하면서 쉽게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중단발전과 세급으로 지원되는 국가보조금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생각이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보조금사업 불사심의에 관한 법'은 시공업체 선정에 있어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삼았다. 수의계약



"룸비니 보존에 한국 불교가 지원을"

반기문 UN사무총장 총무원장 자승 스님 예방

연임 확정 후 한국을 첫 방문한 반기문 UN사무총장이 8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총무원장자승 스님은 반 총장을 반기며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종단을 방문해 감사하다"며 "2000만 불자의 뜻을 모아 연임을 축하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에 반기문 총장은 "사무총장

선출 때도 총무원장 장관 스님에게 인사하고 떠났다"며 "연임이 확정된 지금도 인사를 드리는 게 도리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에 반기문 총장은 "평화안정에는 종교의 역할이 크지만 종교간 이해부족으로 많은 갈등이 표출된다. 작은 갈등이 큰 갈등이 되고 큰 갈등이 전쟁까지 가는 상황이 있다"며 "종교간 상호 신뢰와 이해가 필

요하다"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불교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며 "작게는 한반도 평화와 크게는 인류 평화에 불교가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예방에서 반기문 총장은 네팔 룸비니의 부처님 성역이 방치된 것을 크게 안타까워했다. 반 총장은 자승 스님에게 2012년 네팔 방문 때 동참해 달라며 한국불교계의 지원을 구했다. 조동섭 기자

헛소리가 사자후로 들리느냐

전국 사찰서 불기2555년 하안거 해제 법회

전국 100여 선원에서 용맹정진해 온 2500여 운수남자들이 하안거를 마치고 운수행각에 나섰다. 신묘년 하안거 해제일인 8월 14일, 전국 사찰에서는 하안거 해제법회가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서 조계종·태고종 종정스님과 조계종 총림 방장스님 등 선지식들은 남자들에게 법어를 내리고 씩 없는 정진을 당부했다.

자후가 될 것이요, 탐욕에 물든 견해로써 법을 듣는다면 실사 사자후라고 할지라도 여우 울음소리에 불과할 뿐"이라며 "신묘년 하안거 한철 동안 정진한 힘은 해제 이후 경계를 만났을 때 과연 사자후가 나오는지 여우 목소리가 나오는지 만행길 위에서 스스로를 점검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중정 법전 스님은 해제법어에서 "남자가 법을 제대로 알아차리고 들을 수 있다면 헛소리도 사

태고종 종정 해초 스님은 해제법어를 통해 "깨짐의 마음 밭에는 그 무엇인든 잘 자라지 않음이 없고 맺고 풀이 또한 따로 없는 법"이라

며 "갈절 동안 여러 가지 경계를 이겨내고 수행했으니 이제 사바로 나아가 철저히 점검해 흔들림 없는 마음밭을 씩 없이 가꾸도록 하라"고 말했다. 해제법어 3면 조동섭 기자



"명박산성 어청수가 이사장이라니"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선출 앞두고 반대 성명

차기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어청수 前 경찰청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모든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새로운 공원관리 정책에 대한 뚜렷한 전망을 제시하는 인물이 공단의 대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는 8월 9일 입장문에서 이같이 강

조했다. 조계종 환경위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자격으로 ▷자연·문화환경의 보전과 계승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 ▷이해관계자간 조정·화합 능력을 꼽았다. 조동섭 기자



"지시 받고 검찰에 사건청탁했다"

BBS 장용진 노조위원장 기자회견서 양심선언 후 총무원에 관련내용 전해

"불교방송 보도국장 지시로 영담 스님의 개인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검찰 관계자에게 청탁한 적이 있다" 장용진 불교방송 노조위원장이 검찰출입기자로 활동할 당시 불교방송 이사장인 영담 스님을 위해 검찰에 청탁한 사실을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장 위원장은 8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심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장용진 위원장은 불교방송 경영진 퇴진을 촉구하는 '불교방송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도 발표했다.

곤란하다. 서로 민감한 상황이 되니 오늘 이야기는 못들은 것으로 하겠다'는 말을 들은 후 회사 측의 사건청탁을 모두 거절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후 회사는 청탁을 거절한 자신을 추천지사로 전보하고, 다른 법조계 출입기자들에게 대신 지시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장 위원장은 "종단이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한다면 관련증거 등을 성실하게 제출하겠다. 사법적인 처벌도 감수하겠다. 불교방송에서 이같은 관행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견 후 장 위원장은 총무원장 4층을 방문, 사서팀장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이나은 기자

불교방송 이사장 9월 26일 재논의

BBS불교방송 이사장 선임이 연기됐다. 사장 선임은 이사장 선임에 맞춰 함께 이뤄졌다. BBS불교방송 이사회(이사장 영담)는 8월 11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제75회 이사회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임원(이사 감사) 선임, 이사장 선임, 사장 선임, 전직불교방송 설립 추진 승인, 기타안건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사·감사 선임에서는 임기만료를 앞둔 영담 스님, 종하 스님, 구형선 이사의 연임이 결의됐다. 감사에는 일화 스님이 선임됐다. 조동섭 기자

장 위원장은 "사건 청탁은 회사의 지시로 이뤄졌다. 회사 최고위직인 이사장에 관한 일이라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저질렀다"며 "돌이켜 생각하면 기자윤리나 사회정의 측면에서 분명 잘못된 일이었다"고 회고했다.

장용진 위원장은 "모 부장검사로부터 '기자가 수사에 개입하면

조동섭 기자

849호 CONTENTS

특집	5·8·9·11·12·13
야단법석	
한진중공업 해결 기원법회	2
농인선원 동대문 집회	6
여성지도자를 만나다	16·17
선문회 회장 육문 스님	
불교문화 보전 활용 논의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자승)는 8월 3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불교중흥을 위한 8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유홍준 前 문화재청장이 '1700년 불교문화 보전 활용은'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에는 성보문화재연구원장 범하 스님,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김영애 다함미디어 대표가 참가한다.	
조동섭 기자	

2012년 불교달력 특별할인(8월 1일~9월 30일) 판매

삼보불교카렌다에서는 「2012년 불교카렌다」를 특별할인 기간(8월 1일~9월 30일 까지)에 주문하시면 고급스럽고, 질 높은 50여종의 카렌다를 가장 저렴하고 신속하게 보급 해 드립니다.








※ 다양한 종류(벽걸이, 차걸이비닐캡, 미니스프링, 미니수첩, 탁상, 법오집책자, 사경시리즈, 각종 불교용품 등)의 카렌다 내용과 이미지는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www.samboca.com)에서 확인 또는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 시면 카다락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불교카렌다 제작 전문 **삼보불교카렌다** 대표전화: 031)732-9905 Fax: 031)732-897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17-13 중앙인더스피아 B동 308호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통합검색 삼보불교카렌다 검색 하세요